

광주·전남 공모교장 양극화 뚜렷

교장공모제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출신별, 지역별 공모교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장 승진트랙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고 퇴직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 교원단체가 내부형 공모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공모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모교장은 광주 47명, 전남 133명 등 모두 180명에 이른다. 전체 초·중·고 교장 수 대비 광주는 16%, 전남은 18%다. 광주는 초등 31명, 중등 16명, 전남은 초등 84명, 중등 49명으로, 초등 비율이 각각 66%와 63%로 중등보다 32%, 26%포인트 높다.

공모 방식은 초기에 70~80%에 이르고, 혁신학교·자율형공립학교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가 20% 수준이다. 나머지는 예체능 등 개방형 교장이 근무증인 곳이다.

평교사 출신은 광주가 4명(초등 2, 중등 2), 전남이 8명(초등 4, 중등 4)으로 광주와 전남 합쳐 12명이다. 전체 공모교장의 6.6%에 불과하다.

모두 내부형 공모를 통해 선출된 경우로,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따른 것으로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은 신청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돼오다 지난해부터 50% 이내로 확대됐다.

지원 비율 확대에도 불구, 내부형 교장공모 적용 대상학교가 여전히 자율학교로 제한되다 보니 평교사가 교장에 선출되는 경우는 1년에 1~2개 학교에 머물고 있다.

반면 80% 가량은 교감 출신, 10% 인팎은 교장 출신, 나머지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 전문직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기존 교장의 정규 승진트랙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고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꾸로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 상당수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어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비조합원들에게 의도치 않게 '진입 장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는 특정교원 단체 지부장 출신 교사들이 과반수 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고 전남에서는 4개 초등학교 모두 해당 교원단체 소속 평교사들이 공모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도시 내 신흥 택지지구나 광주 인근 화순, 장성, 담양, 나주 등지는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완도나 신안

전체 공모교장 180명 중 평교사 출신 6.6%

대도시 인근 앞다퉈 공모…농어촌 '글쎄요'

승진트랙 여전-임기연장 vs 특정단체 장악

등지는 상대적으로 기회 혐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해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도 뚜렷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평교사 출신도 가능해 교단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당조 기대와 달리 전통

적인 승진 수순이 되풀이되고 특정 교원단체가 개방형 내부공모를 녹식하다시피 하는건 보기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교육적 소신을 펼칠 많은 분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다"고 말했다.

공모제 교장은 임기 4년으로 전체 교원의 절반 기량을 초빙할 수 있고 재정지원과 함께 자율경영권 등을 부여받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초등 5명과 중등 7명 등 12명의 교장을 공모를 통해 선발키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차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도 자율학교와 혁신학교에 공모교장제 시행에 대한 공문을 일제히 발송한 상태다.

조인호 · 김정환 기자



어린이들이 직접만든 카네이션

아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선물할 카네이션을 만들고 훈하게 웃고 있다.

순천의료원 부적정 행정행위 '수두룩'…도 감사 적발

전남도립 순천의료원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의료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해 16건을 적발, 징계 1명 훈계 1명 등 신분상 조치와 13건은 주의 개선 명령을 내렸다.

감사결과 순천의료원 A씨는 과거 징계처분 경력으로 승진 소요연수에서 6개월을 제외해야 하지만, 실제 사설을 누락해 최저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해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의료원이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입차한 오피스텔을 계약할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폐일 위기에 처했다.

또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물품 구매 과정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현장 입찰 방법으

로 진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입찰 방법으로 산 물품 규모는 81건, 24억5700만 원이다. 현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1.73%로 G2B를 통한 낙찰 하한을 87.74% 보다 최대 95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의료원은 또 조리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추기해 원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의 수익 확보 방안의 하나로 주차타워를 조성하고도 허술한 주차장 운영 방식으로 9년 간 12억 9000만원에 달하는 주차비를 받지 못했다.

이외도 약국에서 보관 중인 약품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이 큰 차이가 났고 보수규정 개정 없이 지원들의 가족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도 대로 적립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의료원은 앞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최근까지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전남도는 또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24건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토록 요구했다.

김정환 기자



홈페이지 : www.s-honam.com

전화번호 : 062-224-5800 팩스 : 062-222-5545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딸 살해·유기 의붓아버지 검찰 송치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아내 유모(39)씨와 공동으로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딸 A(12)양을 복 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의붓딸 A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데 양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씨와 지난달 28일 오후 목포지역 마트·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후 5시께 김씨의 부탁을 받은 유씨는 목포마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딸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웠다.

이후 무안 한 농로로 이동하다 김씨는 A양과 다른 뒤 차량 뒷좌석에서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숨진 A양을 차량 트렁크에 옮겨 12시간 가량 유기 장소를 찾아다니다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숨진 A양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 차량 불 지르고 훔친 차량 운전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절도)로 김모(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대 보닛 위에 폐지를 옮겨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인근 숙박업소에 차량 열쇠가 꽂아진 채 세워진 경차 1대를 훔쳐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집을 나와 열흘 전부터 노숙을 하던 중, 환경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하늘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고 훔쳐 타고 달아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훔친 차량을 약 10km 가량 몰고 북구 운암동에 도착한 뒤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김씨가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서 역주행으로 승용차 2대 충돌 4명 부상

대구에서 역주행으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7일 대구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서구 평리동의 한 도로에서 비산동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하던 에쿠스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 A(50·여)씨와 제네시스 운전자 B(40)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차량 충돌 후 에쿠스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출근시간대 특정 신체 노출 공무원 입건

전북 군산경찰서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과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뉴시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